2012. 11. 07

美 오바마 재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

작성자 : 중소기업정책팀 과장 곽동철 ☎02-729-6859

정책의 연속성 유지로 재정절벽 조기 해결 가능 전망

- 재정 지출 축소 규모가 5,600억 달러(현재 기준)보다 대폭 축소된다면 '13년에는 소비 회복으로 선순환 구조* 형성
  - 오바마의 선거 공약으로 미루어보면 신재생 에너지, 제약·바이오 업종이 수혜를 입게 될 전망
  - 다만, 동 조치가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 '13.2월 말에 합의될 경우 美 소비가 위축되어 국내 경기민감 산업(기계류, 자동차/부품 등)의 수출 둔화 예상

〈부문별 영향〉

무역

한국을 주요 무역 파트너로 인정하기 때문에 한·미 FTA 등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

주식 시장

대선 종료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가 긍정적인 요소

- 과거 사례를 보면 '04년 부시 재선 시 KOSPI는 한 달간 4.4% 상승한 반면, '08년 오바마 초선 시 11.3% 폭락
  - '12년은 오바마 재선이 시장에 先반영되어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

은행 산업

내수 산업이고,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 않아 영향은 미미함

- 볼커룰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해외 사업에 영향을 미침
  - 미국 은행, 미국 현지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 은행의 미국 지점에도 적용되어 국내 은행권도 영향을 받을 전망

* 소비 ↑→생산 ↑→고용 ↑→소비 ↑